

설계 쟁점에 따른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비판적 분석

A Critical Analysis of Large Parks Design in Korea
with a Perspective of Contemporary Design Issues

박선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제1저자)
Bark Sunhee M. S.,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Primary Author)
(shuny1010@naver.com)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부교수(교신저자)
Pae Jeonghann Associate Pr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
(Corresponding Author)
(jhannpae@snu.ac.kr)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II.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

1. 공공성의 회복과 확장
2. 도시와 생태계의 통합
3. 전통적 공원 미학의 한계 극복

III.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분석

1. 공공성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설계 전략
2. 도시와 생태계의 통합을 위한 설계 전략
3. 전통적 공원 미학의 한계 극복을 위한 설계 전략

I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 개발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구축에 비중을 두어왔다. 특히 이러한 개발 계획은 주요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 공약과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SOC 개발 패러다임을 이끌었다. 일례로 민선 3기 서울시에서 수행한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35만 평의 서울숲 등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은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이유주현, 2010: 65). 이후 각 지자체는 도시 성장을 위해 창조 및 혁신도시 프로젝트, 도시 디자인 정책,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 가운데, 도시 개발의 부차적 사업에 머물러 있었던 조경 프로젝트가 도시 개발의 중심사업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조경은 프로젝트의 물량이 눈에 띄게 증대하였고 설계 또한 질적으로 발달하였다(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213). 그리고 프로젝트의 규모가 대형화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 100만 m^2 이상의 광역권 공원 조성 계획 및 설계 공모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잦은 용도 변경으로 골머리를 앓던 115만 6,498 m^2 면적의 성동구 독성 부지는 유례없는 단일 용도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어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숲이 되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부지 중앙에 펼쳐진 698만 2,000 m^2 가량의 초대형 공간이 녹지로 계획되었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148만 7,374 m^2 규모의 여의도 한강공원이 조성되었고, 광고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된 204만 3,858 m^2 의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일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광고 호수공원이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될 자리

에 242만 6,748 m^2 의 대한민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설계 국제공모가 실시되었다.

이들 대형 공원은 하나의 도시 지역을 초과하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기초적 공공재나 기반시설 처럼 도시 구조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대형 공원은 도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위해 대형 공원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동시대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 내에서 대형 공원이라는 대규모의 공간에 대한 동시대적 이해와 활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대형 공원 개발·계획·설계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시대 도시 공원의 기능과 의미를 재고하고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다.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II장에서는 대형 공원 설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대형 공원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대형 공원은 도시와 긴밀한 관계 속에 놓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모의 공원을 설계할 때와는 다른 조건과 목표를 지닌다. 앞서 서구의 조경 분야는 대형 부지의 특수한 조건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대형 공원 설계의 양상을 다각도에서 연구한 바 있다. 2003년 하버드대학교 설계대학원의 라지 파크 컨퍼런스와 이 컨퍼런스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책 「라지 파크(Large Parks)」, 그리고 서구에서 진행한 다수의 대형 공원 설계 공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II장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형 공원 설계의 쟁점을 도출한다.

III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대형 공원 설계의 목표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 설계 전략을 분석한다. 이때 분석의 대상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 개발 패

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주요 대형 공원 설계공모인 독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200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2007),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의 출품작들이다. 이 세 가지의 설계공모는 현대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발달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한국 조경 분야에 공원 설계와 관련한 다각도의 연구와 비평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IV장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II.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

줄리아 처니악(Julia Czerniak)은 대형 부지가 복잡성(complexity)을 생산하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공원을 설계할 때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Czerniak, 2010a). 실제로 대형 공원 설계와 관련하여 선행된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시·생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형 공원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형 공원 설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대형 공원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 가운데, 공공성, 생태, 미학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을 쟁점화한다. 이들 개념은 현대 공원의 시초인 센트럴 파크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필수적 가치로 여겨져 왔으며, 대형 부지를 공원화하는 동시대의 공원 설계 패러다임에서 확장되고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 공공성의 회복과 확장

공원의 기원이 되는 영국의 하이드 파크(Hyde Park),

독일의 티어가르텐(Tiergarten), 프랑스의 블로뉴 숲(Bois de Boulogne) 등을 보면, 왕이나 귀족의 정원 또는 사냥터를 노동자 계급과 새로운 중산층에게 개방하면서 공원 개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족에게만 허용되었던 여가공간이 이때부터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도 허용되었다. 이는 공원의 공공성이라는 전통적 가치의 근간이 된다. 공원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현대 도시 공원의 시초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공원의 공공성을 사회적 차원으로 한층 확대시킨다. 뉴욕시의 공공 위생과 사회 문제를 놓고 다수의 전문가 집단이 공공 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센트럴 파크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폭력과 범죄를 교화하는 공원으로 계획되었다. 센트럴 파크의 설계자인 올름스드(Frederick Law Olmsted)는 도시 공원을 ‘가장 높은 차원의 민주적 발전’이라고 불렀으며, 남녀노소,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확신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호소하는 각종 시위와 집회 활동이 공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공원의 공공성에 보다 급진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을 부여하였다. 돈 미첼(Don Mitchell)과 리처드 반 뒤센(Richard Van Deusen)의 논의에 따르면, 공원의 공공성은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발생한다(Mitchell et al, 2001: 105). 공원은 마땅히 권리에 대한 대중의 투쟁을 감당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 중심의 공공 공간이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공원의 정체성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대 공원은 철저하게 수동적 여가 활동의 장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점차 확대되는 이용자 층의 자발성과 다양한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설계자 중심의 공원 설계를 양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침투에 대한 시

민 사회론의 대두, 국가 우선 사회에서 개인 우선 사회로의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을 진화·확장시키고 있다(염철호 외, 2009: 23-24). 따라서 현대 공원은 일방적이고 공급 위주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처럼 변화된 공공성의 개념에 대응하는 새로운 설계 모색을 미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 공원은 공공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형 공원은 부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단일한 성격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간을 공유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대형 공원은 다수의 개인 혹은 집단의 의견이 상충하는 장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대형 공원은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대형 공원은 소형 공원에 비해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가 더 어렵다. 대형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은 공원 설계가 일방적인 설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대형 공원은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증심화하는 능력을 가진다.

2. 도시와 생태계의 통합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인간의 활동과 개발에 대한 태도는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보다 실천적인 해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조경 설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생태 환경을 고려한 전-개념적(preconceptual) 설계를 제시한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생태적 조경 계획이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설득력을 얻었다. 그는 환경보존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의 외형이 아닌 내형, 즉 '생태'라는 과학적 체계와 자연의 과정을 설계에 적용하였다. 이는 조경 설계에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적 시스템을 확립시켜 주었으며, 조경의 실천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였다(배정환, 2004: 67).

그럼에도 맥하그 식의 설계는 조경 설계의 문화적·감각적 표현과 이용적 측면을 평가절하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를 계기로 조경 설계는 환경적 문제에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문화적·예술적 이용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적 설계'의 방법을 다각도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일군의 설계가들은 생태적 요소와 과정을 설계 언어로 치환하는 일종의 예술적 은유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생태적 가치를 공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어떠한 환경적 의식 혹은 영감을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그러한 설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그 문화적 파급성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시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는 보존과 개발의 양면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공원 설계 분야는 생태적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관생태학, 보존생태학, 도시생태학 등 응용생태학 분야의 연구는 새로운 설계 방향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는데, 이들은 생태계를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시스템이 아닌 진화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도시와 같은 인공 환경은 교란과 진화와 같은 생태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인식했다.

결과적으로, 응용 생태학의 사고에 근거하여 동시대의 생태적 설계는 생태계 시스템을 공원 안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공원을 도시라는 진화된 생태계의 일부로 구성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다운스뷰 파크(Downsview Park)의 대상지는 나이아가라 단층으로 형성된 분지, 오크 리지 빙퇴석, 온타리오 호수 등으로 구성된 광역 토론토 생물권과 겹치는 생태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었다(Czerniak, 2010b: 254). 따라서 설계공모의 주최 측은 부지의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생태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이 통합되는 도시 공

원 구현을 설계 지침으로 제시했다. 프레쉬킬스(Fresh Kills) 매립지 공원화 과정에서도 부지의 생태적 조건과 관련한 논의가 설계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매립지 내의 지질·토질·수계·식생·야생동물 서식지 등 자연 시스템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봄·가을에 포착되는 대규모 철새의 움직임 또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이처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설계의 대안적 방향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대형 공원은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쟁점화된다. 줄리아 처니악은 넓은 면적의 땅이 변화하는 생태 시스템에 대한 적응적 관리를 보장하고, 자연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논하였다. 대형 공원은 생태적 변화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적응의 측면을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e)과 생태적·문화적·경제적 생존을 위한 수용력을 지니기 때문이다(Czerniak, 2010b: 236).

3. 전통적 공원 미학의 한계 극복

목가적 풍경으로 대표되는 픽취레스크는 센트럴 파크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공원 미학이다. 이는 도시 약에 반대되는 선하고 순수한 자연의 경험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 관례적인 공원 미학은 자연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박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픽취레스크 경관의 장식적인 측면은 문명의 이기를 위장하는 위선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¹⁾

이러한 맥락에서 공원 설계 분야는 목가적 미학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미의 영역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

때 환경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예술 활동과 환경 미학 이론이 조경 분야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대지예술은 오브제에 의한 아름다움이 아닌 환경적 맥락에 내맡겨지는 한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다. 환경미학은 기존의 시각적·관조적 미학의 개념을 대치하는 경험적이고 공감각적인 미학을 강조하였다.²⁾ 평면적이고 제한적이었던 미학의 범주가 공간적이고 다감각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 도전이 발생하는 가운데 동시대의 대형 공원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설계로 실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부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가적인 정돈된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적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 일레로 린다 폴락(Linda Pollak)은 프레쉬킬스 파크가 조성될 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새로운 미적 감각의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그녀는 프레쉬킬스의 통제되지 않는 자연과 내적·외적 교란이 너무 크고 복잡하므로 숭고미(the sublime)의 차원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한다(Pollak, 2010: 108). 수잔 헤링턴(Susan Herrington)은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Duisburg-Nord Park)와 같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설계 사례를 통해, 대형의 폐산업부지가 다층적인 시간의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이 제시하지 못하는 사공간적 차원의 감각을 제공한다고 말한다(Herrington, 2006).

이들 논의에 따르면 대형 공원은 기존의 공원 설계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시간성, 복잡성, 낮선 감각과 다양한 감각 등의 미적 요소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미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원에서의 미적

1) 일레로 린다 폴락은 공원 설계에서 목가적 시나리오의 이면에 자연을 통제하려는 개발주의적 태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고, 엘리자베스 마이어 역시 교란된 부지에 형성되는 대형 공원은 인간의 이용을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세척하기 위한 개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오염에 대한 위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Pollak, 2010: 104; Meyer, 2001: 69).

2) 환경미학과 관련한 내용은 Berleant(1992)를 참조.

경험의 수준을 승고의 경험으로 확장시켰다. 대형 공원 설계에서의 미학적 실험은 기존의 공원이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과 미를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III.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분석

공공성, 생태, 미학이라는 조건은 전통적인 공원 설계에서도 필수적 요건이었다. 그러나 공원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그 조건들의 역할이 확장되고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 공원은 공공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는가? 도시와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 전통적 공원 미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원 미학의 양상은 어떠한가? 다음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특성을 분석의 관점으로 삼아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를 논의한다.

분석 대상은 2000년대 이후 주요 대형 공원 설계공모의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살펴볼 주요 설계공모는 대형 공원 설계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발달 양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모다.

먼저 2003년 독점 숲(안) 조성 현상공모의 수상작들을 분석한다. 이는 다운스뷰 파크 설계(2000)로 대표되는 실험적인 공원 설계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례다. 따라서 유행하는 디자인에 대한 소비적 태도가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였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대형 공원에 대한 한국 조경의 목표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의 수상작들이다. 이는 대형 공원 담론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내외의 설계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공모 사례이며, 도시적 상황과 부지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실험과 도전이 허용된 사

례다. 더불어 이 공모는 도시 건설 과정에서 동력으로 작용하는 녹색 인프라로서의 공원을 요구했다. 이것은 동시대의 공원 설계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공원의 도시적 작동성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12년의 용산공원 설계국재공모 수상작들이다. 이는 대형 공원 패러다임이 한국의 조경 설계 문화에 보편적인 태도로 정착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례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적지라는 부지의 특성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이슈를 생산함으로써 인해 설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세 가지의 설계공모는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과제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이들 설계공모에서 도출된 대형 공원 설계의 목표, 전략, 개념, 구체적 형태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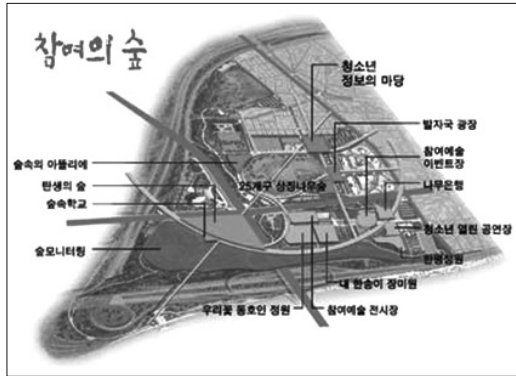
1. 공공성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설계 전략

독점 숲(안) 조성 현상공모의 설계 지침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공모의 출품작들은 공원 조성에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용자 집단의 행태를 예측하여 다양한 활동 공간을 배치하였다.

당선작인 동심원의 '서울숲'은 나무를 직접 심는 식수 행사를 개최하고, 필요한 나무를 사고파는 나무은행을 운영하며, 시민이 만든 예술 작품을 공원의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소속의 독립 부서로 '서울숲 관리단'을 설립하여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조경설계서안의 제출작 '서울숲' 역시 동심원의 설계안과 유사하게 식수 행사, 탄생목 심기, 목요일은 나

그림 1 _ '서울숲'(동심원)의 참여 다이어그램



무를 생각하는 날, 환경 조형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특별히 부지 북서측에 위치한 성수중 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열린 시민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열린 시민 학교는 공원의 시설물을 생태·환경·역사·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공원 활동을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출품작이 대상지의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단위 공간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조경설계서안의 '서울숲'은 교육과 문화, 생태 탐방, 스포츠, 휴식과 산책 등의 카테고리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고 그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공생의 고리'는 습지 생태의 숲, 재생의 숲, 열린 참여의 숲, 자연생태의 숲, 물의 정원, 에너지의 숲이라는 여섯 가지 테마 공간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단위 공간을 더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서인조경의 'O₂ Centre'는 각 단위 공간을 12개의 테마 숲으로 나누었고, 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주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독점 숲(안) 조성 현상공모의 출품작들은 참여의 전략과 공간의 다양화 전략을 다수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선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나타난다. 일례로 서인조경의 'O₂ Centre', 우대기술단의 'New Tech Forest'

와 동심원의 '서울숲'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단위 공간의 수는 각각 46개, 49개, 51개이며, '공생의 고리'의 경우는 64개나 되는데, 이들 공간에서 예상되는 활동의 범주는 피크닉, 생태 학습, 산책, 운동 등으로 매우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설계가 다층적인 활동의 공존과 혼합, 그리고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 활동 집단 간의 갈등을 예측하기보다는 물리적인 공간의 세분화에 집중하였다고 평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는 독점 숲(안) 조성 현상공모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가치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활동기반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시민이 공원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설계안은 문화·예술·역사·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단위 공간이 통합적으로 배치되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곳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1등 안인 노선주 등의 'Ancient Futures'는 도시 공간과 면하고 있는 대상지의 북쪽과 서쪽 가장자리에 소공원, 광장, 마켓, 아트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했고(〈그림 2〉 참조), 2등 안인 김중규의 'Long Views' 또한 도시와의 연결성이 우수한 96번 국도와 남쪽 제방도로에 인공의 플랫폼을 더해 다양한 성격의 단위 공간을 연속적으로 배치했다(〈그림 3〉 참조).

그림 2 _ 'Ancient Futures'의 도시와 인접한 면을 중심으로 구축한 프로그램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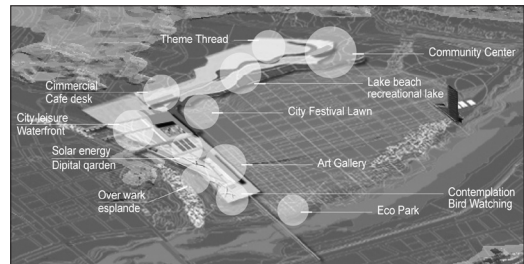


그림 3 _ 'Long Views'의 96번 국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인공 플랫폼



한편 3등 안인 민현준의 'Carved Park'는 대상지의 기존 경관과 구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보행로와 활동 공간만을 음각의 형식으로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는 단위 공간을 보행의 각 결절점에 제한함으로써 파편화된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파편화된 단위 공간은 도시와 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역시 연속적이고 쉬운 접근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설계는 단위 공간의 성격을 다양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단위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 접근의 용이함은 시민들의 공원 참여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 프로그램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설계 과정에서 이용자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설계 방식을 취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역시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공공성이 존중되는 공원 설계를 목표로 단위 공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세분화 전략을 제시하고, 공원의 조성·운영·관리에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대형 공원 설계에서 다층적인 공공성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 개념이 '다양화'와 '참여'로 공식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용산공원 설계안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수

익을 발생시키는 전략을 더하기도 했다.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신화컨설팅+서안알앤디디자인 외)의 공원 운영 프로그램인 'Friends of Yongsan Park'를 통해 공원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을 개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조경설계서안+M.A.R.U. 외)는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1,061개의 건물과 단위 공간을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소셜 렌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소셜 렌트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용산공원 내의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략은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 비용을 공원 스스로 자족하고, 또 개개인의 시민 혹은 단체를 투자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간에 대한 주체意識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가 공원에 개입됨으로 인해 대형 공원은 오히려 공공 공간의 불평등한 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 도시와 생태계의 통합을 위한 설계 전략

독점 숲(안) 조성 현상공모는 공원 녹지가 부족한 서울시 동북부 지역에 자연 친화적인 대규모의 녹지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숲'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설계 지침은 시설물보다는 식재 위주의 설계를 요구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식재 수종의 선정을 요청하였다.

다수의 설계안은 설계 지침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숲'의 속성을 공간에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숲의 외적 특성보다는 숲의 생태적 특성인 작동성과 자기조직성 등이 반영되었다. 일례로 동심원의 '서울숲'은 숲 구조의 가변성과 대상지의 생물종 다양성을 분석하여, '생명의 숲'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러한 생태적 특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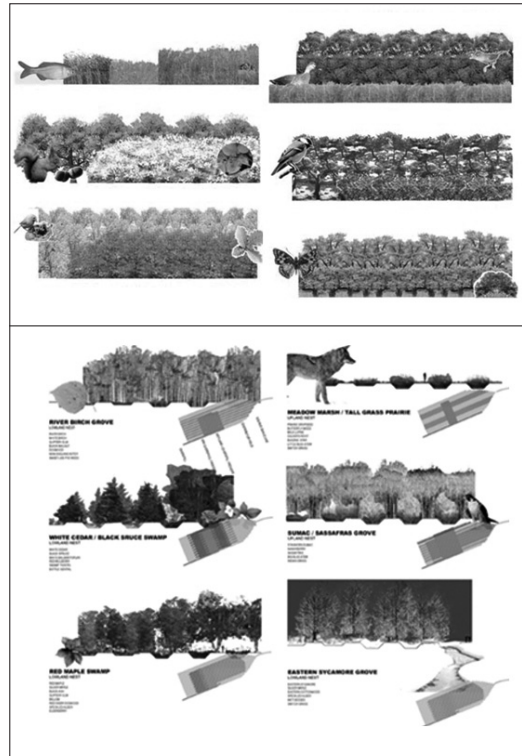
고려한 공간의 구조와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접한 아차산, 남산, 응봉산의 식생 구조를 모델로 삼아 자연스러운 천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숲의 구조와 맥락을 구축하였다. ‘공생의 고리’는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생태 통로 네트워크를 설명하였다. ‘O₂ Centre’는 최소한의 이용만을 허용하는 핵심 녹지 공간에 천이, 성장, 순환, 서식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점 녹지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설계는 보다 작동적(operational) 생태를 공원 안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대형 공원 설계의 생태적 목표를 반영한다. 기존의 생태적 설계가 곡선, 부드러운 질감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시각적 특성을 강조해왔다면, 이들 설계는 생태학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작동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각각의 전략은 2000년의 다운스뷰 파크 등 서구의 설계 공모에서 도출된 방법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상민, 2006: 134). 일례로 야생 동식물 서식 환경 및 종 다양성을 설명하는 동심원 설계안의 다이어그램은 다운스뷰 파크 설계공모의 ‘Emergent Ecologies’(James Corner + Sten Alen)에서 표현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4)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은 신도시의 거점 녹지 공간으로서 ‘경관과 환경의 거점’, ‘친환경’, ‘녹색 심장’, ‘자연 생성소’ 등의 생태적 개념을 설계의 기본 원칙과 비전으로 삼았다. 이는 총 2단계의 설계 공모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1단계 설계 지침에서는 전월산·원수봉의 주변 녹지 체계와 경관, 금강·제천의 하천 및 습지 구역, 중앙에 펼쳐진 대규모 평야 등 해당 부지의 환경적 조건이 설계의 주요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2단계 설계 지침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적인 운영 방안, 생태적 공간에서의 교육 및 휴식 프로그램 도입 방안, 대상지 내외부의 경관 자원 활

그림 4 _ ‘서울숲’(위)과 ‘Emergent Ecologies’(아래) 다이어그램의 유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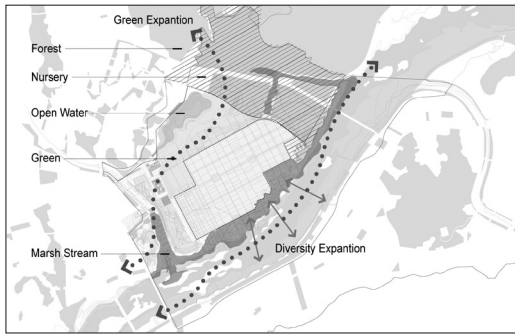


용 및 연계 방안, 토지의 질·성토와 하천의 선형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 호안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의 구체화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친환경 도시의 비전과 풍부한 생태적 환경 조건을 바탕으로 중앙녹지공간 설계 출품작들은 생태적 설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당선작 ‘Ancient Futures’는 대상지의 풍부한 생태적·환경적 조건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개념으로 ‘공존’을 논한다. 중앙녹지공간은 도시와 자연, 인간과 자연의 공존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는 대상지 내외부의 생태적 환경의 공존을 추구한다. 따라서 관계 수로에 변화를 주고 금강의 독을 제거하여 대평야와 강의 관계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주요한 설계 전략으로 삼았다.

독이 제거되면 강은 평야로 자연스럽게 넘친다. 대평야의 눈은 웅덩이의 형태부터 건담의 형태로 다채롭게

그림 5 _ 'Ancient Future'의 금강 독 제거 전략



변화하고, 이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된다. 그리고 이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자기조직력이 된다. 평야의 논은 경작 프로그램과 공원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설계안의 중심 전략이 되는 제방의 제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생태적 환경의 변화와 교란을 수반한다. 예측할 수 없는 교란은 공원의 생태적 구조뿐 아니라 공원의 활동 구조와 도시와의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설계안은 제방의 제거에 수반되는 생태적·기술적 해법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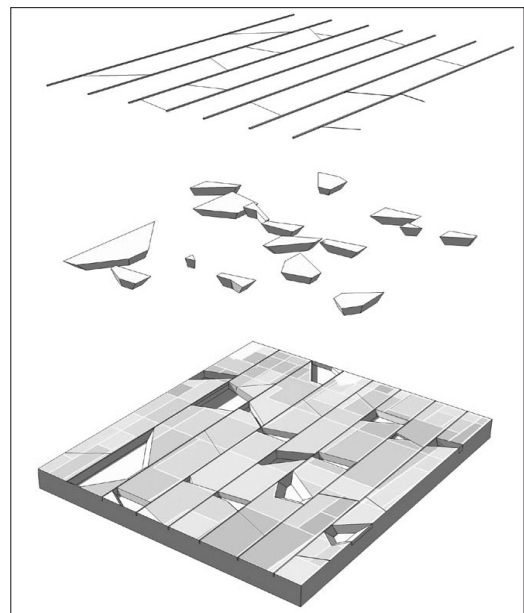
'Long Views'는 대상지의 지질학적·생태적 요소로부터 도출된 대상지의 특성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것은 광역적인 수평 경관과 물과 농경지의 특성으로 형성된 제방-평야-금강의 3단계 레벨의 내부 경관이다. 이 설계안은 대상지의 강력한 특성인 수평적 경관의 보존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지 내부 공간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3단계의 지형 위계를 무너뜨리고, 대상지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자연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최소한의 공원 활동만을 허용하며 농경지를 자연에 돌려주려 고자 한다. 자연화를 통해 대상지는 스스로, 천천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자연이 된다. 그리고 일부의 인공 언덕, 인공 플랫폼 등은 자연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활동을 허용하는 공간이 된다.

이 설계의 경우 공원 부지 대부분이 자연화의 과정을 위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거점의 작동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형 공원의 생태적 설계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만, 생태적 목표를 위해 공원의 본질적 가치인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축소시키는 난점을 보여준다.

한편 'Carved Park'는 기존 부지의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설계로 '음각'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대부분 경작지였던 기존의 부지가 공원으로 개발될 때 엄청난 토목 공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면 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한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계획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 안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음각된 각각의 공간은 필요에 따라 더 생성될 수 있고 불필요할 때 쉽게 없앨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생태적 교란이 발생하였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그림 6) 참조).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의 지침에는 공원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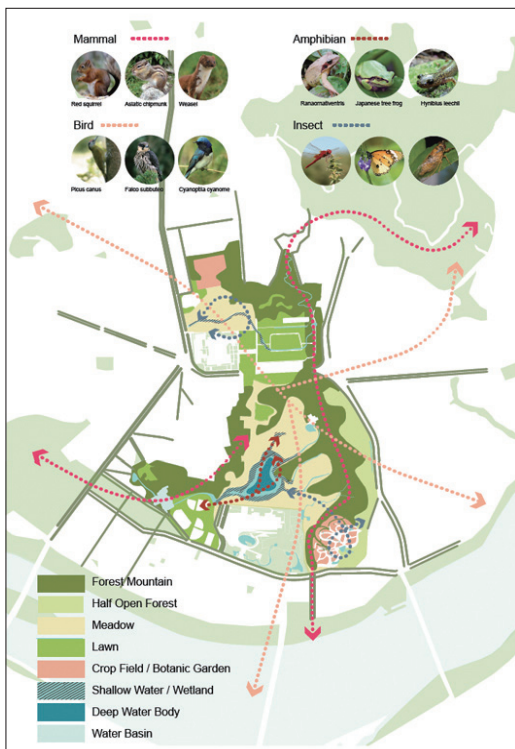
그림 6 _ 'Carved Park'의 음각 전략



나타난다. 용산공원의 비전은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목표는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고 '녹색 국토 환경'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의 기본 방향은 산림 녹지축과 하천 습지축의 형성, 도시 미기후 조절을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성과 경영 과정에서의 탄소제로, 도시 농업의 도입 등을 지향한다.

1등 당선작인 'Healing: The Future Park'(West8+ 이로재 외)는 '자연의 치유'라는 개념을 통해 시각적이고 생태적인 한국의 경관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지형의 조작은 시각적인 생태 경관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생물 서식지 및 종 다양성, 야생동물 이동 경로, 4개의 저류지와 수체계 등 작동적 생태계를 공원과 통합하는

그림 7 _ 'Healing: The Future Park'의 서식지 및 생태 이동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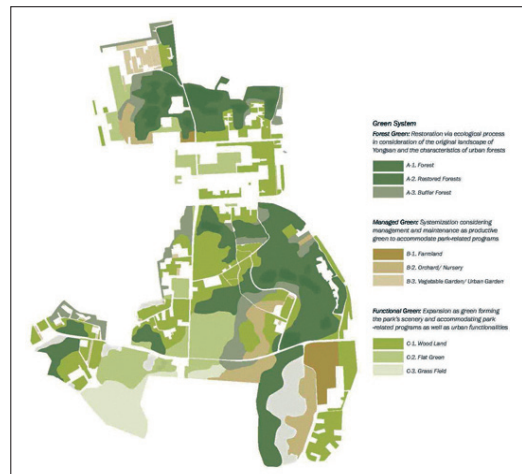


과정이기도 하다(그림 7) 참조).

'Openings Seoul's new central park'(Field Operations +삼성에버랜드 외)도 '숲의 재생과 서식지 구축'이라는 개념을 통해 360에이커의 생태축 공간을 북과 남을 연결하는 녹색 카펫으로 비유하였다. 이 녹색의 카펫은 임업 기술을 동원하고 순차적인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숲이 된다.

한편 'Yonga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는 공원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생태 전략을 제시한다. 이 설계안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숲과 시공간적 완충체로서의 숲이라는 두 가지의 숲 개념을 통해 광역적 생태계의 개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숲은 자유로운 이용과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시공간적 완충체로서의 숲은 생태적 다양성과 안정적인 생태계 성장을 위해 이용과 활동을 제한한다.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도 이와 유사하게 녹지 체계를 공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 설계안에서 기존의 녹지는 공원 구조의 뼈대다. 그리고 기존의 녹지를 토대로 복원되고 재구성되는 숲, 관리·경작지, 이용녹지 등 세 가지 유형의 녹지는 공원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된다(그림 8) 참조).

그림 8 _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의 녹지 체계



종합적으로, 생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설계 전략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와 이동통로 마련을 통한 생물 종 다양성의 구현, 자연스러운 천이와 성장 기반의 구축, 광역적 도시 생태 네트워크의 거점 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동적이고 진화하는 생태계 시스템을 공원 안에 통합한 결과다. 그러나 다수의 설계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나 텍스트들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작동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설계 전략이 공식화되고 관례화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이 인간의 활동과 생태계의 통합을 고민하기보다는 작동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을 서술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3. 전통적 공원 미학의 한계 극복을 위한 설계 전략

독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의 출품작 대다수는 설계안의 조감도에서 넓은 잔디밭과 곡선의 산책로 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시각적이고 정태적인 전통적 공원 미학의 습관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의 공감각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실험적인 미학도 곳곳에 나타난다. 나무의 질감, 향기, 열매 등을 활용하여 조성한 ‘오감 체험의 숲’ (공생의 고리), 강바람의 촉각, 청각, 시각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바람의 언덕’과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사시나무를 식재하여 바람의 청각적·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소리나무 숲’ (동심원의 ‘서울숲’)이 그 예다.

더불어 지역 고유의 자원을 미적으로 활용하는 설계도 나타난다. 동심원의 ‘서울숲’은 응봉산·초원·한강의 조화로운 경관의 조망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조망 언덕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O₂ Centre’ 역시 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응봉산과 한강으로의 조망축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시각 흐름을 유도하는 설계를 제안하였다.

한편 조경설계서안의 ‘서울숲’은 개발 자원으로 사용되면서 사라진 저자도를 재현하였다. 이는 개발 문명의 이기를 반성하고 미래 환경의 생태적 복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시간이라는 감각을 공간에 부여함과 동시에 의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경험을 조장함으로써 전통적인 공원 미학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의 출품작들은 평야, 산, 강이 어우러져 형성된 대상지 고유의 한국적 향토 경관으로부터 미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대상지 고유의 미적 가치를 활용하여 공원에서의 미적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례로 ‘Ancient Futures’는 대상지에서 천 년을 넘게 유지해온 경작의 문화와 경관이 지나는 미적 가치를 설계에 활용하였다. 이는 농경지와 농업 문화의 재현을 통해 전통이라는 시간적·문화적 감각을 경험하고, 농업 경관과 도시 경관의 통합과 병치를 통해 생경하고 이질적인 미적 감각을 경험하도록 한다(그림 9) 참조).

그림 9 _ ‘Ancient Futures’의 생산 경관의 미학



‘Long Views’는 수평적이고 연속적인 대상지의 경관으로부터 미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설계가는 대상지의 수평성과 연속성은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지역 고유의 미적 감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상지 경관의 수평성과 연속성을 보존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지형을 조작하는 설계 전략을 도출하였다. ‘Carved Park’ 또한 대상지 특유의 수평성을 보존하

기 위해 대상지의 표면을 개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설계안이 제안하는 전략은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수평성과 연속성이라는 미적 가치는 시각에 제한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두 설계안이 설계의 주요 전략으로 삼는 수평성의 보존이 공원에서의 미적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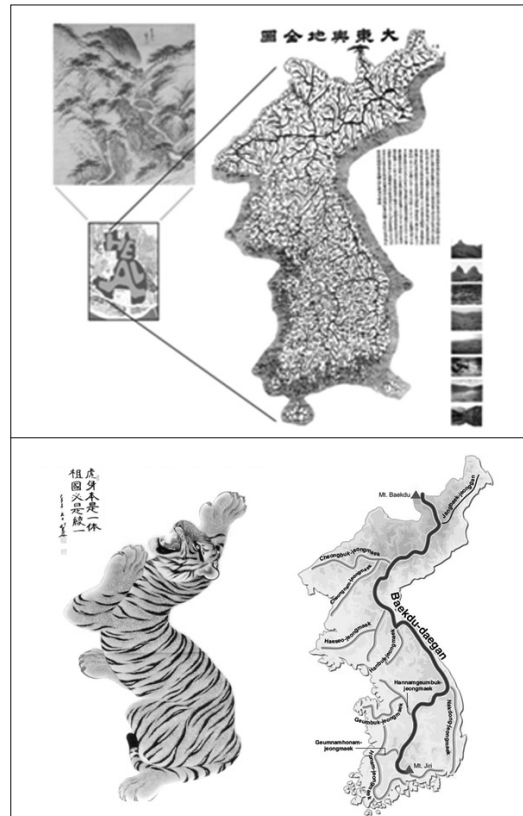
용산공원은 다감각과 공감각의 미학을 실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적 정체성을 미학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설계 지침은 이를 위해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의 경관적 재현’을 명시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표적 경관 요소를 공원의 각 공간에 유형화하고 경관의 복원을 통해 공원의 기능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설계 지침에 근거하여 ‘Healing: The Future Park’는 ‘삼천리금수강산’을, ‘Connecting Tapestries’ (CA+Weiss/Manfredi 외)는 ‘태백산맥’을 한국인의 자연관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남북 생태축 공원을 중심으로 지형을 조작하였다. 심사평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략은 단절된 남북 생태축을 재구축했다는 성과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존중하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문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관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지형 조작은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경관 문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경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전략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연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남긴다 (〈그림 10〉 참조).

한국적 상징성과 지역성을 표현하고자 한 또 다른 사례로, 전통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Healing: The Future Park’와

‘Yongsan Madangs’(그룹한+Turenscape 외)가 한국인의 생활공간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오픈스페이스인 ‘마당’의 개념을 공원의 단위 공간에 대입하였다. 구체적으로, ‘Healing: The Future Park’의 경우는 제거해야 할 건축물의 자취를 남겨 마당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마당의 느낌을 표현했다. ‘Yongsan Madangs’는 마당의 다양한 크기와 용도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공간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하는 ‘마당코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8개 데이터(집수구·녹지체계·오염도·건축물·주거·역사·업무·상업)를 통해 대상지를 분석하여 특징적인 공간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마당코딩 시스템에서 마당의 개념은 전통의 개념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지만 응용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10 _ ‘Healing: The Future Park’(위)와 ‘Connecting Tapestries’(아래)의 디자인 모티브



이처럼 용산공원 설계에 나타나는 한국적 미에 대한 재발견은 고무적이다. 대상지 고유의 특성을 미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지역성과 장소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경관설계 및 환경설계의 대안적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 요소를 공원에 그대로 옮겨오는 식의 설계는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적인 미가 전통적 요소의 보존과 활용으로부터 온다는 식의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IV. 결론

2000년대 이후 한국 도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수의 대형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경 분야는 공공성, 생태, 대안적 미학이라는 공원 설계의 목표를 재구축하게 되었다. 대형 공원은 공원이라는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확장시킨다. 도시와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킨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원 미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학적 실험을 시도한다.

이러한 쟁점에 따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형 공원 설계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로 공공성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다수의 설계안은 다양한 종류의 단위 공간을 배치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상호 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공원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설계가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공성의 가치와 관련한 설계 아이디어들은 다소 선언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로 공원 안에서 도시와 생태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대다수의 설계안은 생태학적·환경공학적 개념을 활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형 공원 설계에는 생물 서식지 보존, 생물 종의 다양화, 생태 네트워크 구축,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친환경 개발 등의 다이어그램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전략은 서

구의 선례를 모방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관계적인 설계 공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공간을 통합시키기보다, 오히려 활동 공간과 보존 공간으로 이원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대형 공원 설계는 새로운 미학의 방향으로 대상지와 지역 고유의 미적 자원을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용산공원 설계 과정에서는 한국적 상징성의 재현을 강조한 설계 지침으로 인해 한국적 경관 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지의 특징적인 미를 공원 설계에 활용하는 대안적인 공원 미학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적 미에 대한 강박, 미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작위적인 치환 등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오히려 공원에서의 미적 경험을 훼손하고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형 공원은 공원이라는 도시 구성요소의 역할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설계 전략과 방법은 공원을 도시 내에서 보다 작동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원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폭넓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질적 성장과 관련한 동시대적 개발 패러다임에 응답하는 대안적인 개발의 한 분야로 부상하였다. 비록 여기에는 한계 또한 나타났지만, 이후의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통해 그것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설계 방법이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공원의 역할이 확장됨으로써, 그것의 본질적 기능인 일상적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대형 공원 설계는 공원의 도시적 작동성을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하고 일상적인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공원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가 일상적 여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인 만큼, 대형 공원 설계는 간과되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다시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장 최근에 진행된 용산공원 설계공모에

서는 현재 제안된 용산공원 설계의 핵심 개념이 실시 설계 과정까지 유지되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이처럼 대형 공원 설계에는 최초의 설계를 지속시키는 지속성과 실시 설계 및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resilience)이 요구된다. 대형 공원은 실제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시 설계 및 시공 과정 중에 다양한 변수를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의 설계에서는 지속가능한 탄력적 설계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Large Park”. eds. Czerniak, J. and Hargreaves, G. in *Large Parks*, trans 배정환 · idla, 경기 : 도서출판 조경, pp97-133.

- 논문 접수일: 2013. 1. 11
- 심사 시작일: 2013. 1. 21
- 심사 완료일: 2013. 2. 8

참고문헌 •••••

배정환, 2004. 현대 조경의 이론과 쟁점. 경기 : 도서출판 조경.

염철호 · 심경미 · 조준배, 2009.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2006.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유주현, 2010. “공원과 광장을 둘러싼 공간정치”. 공원을 읽다. 경기 : 나무도시. pp59-73.

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한국 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경기 : 도서출판 조경.

Berleant, A.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Czerniak, J. 2010a. “Introduction: Speculating on Size”. eds. Czerniak, J. and Hargreaves, G. in *Large Parks*, trans 배정환 · idla. 경기 : 도서출판 조경, pp18-35.

_____. 2010b. “Legibility and Resilience”. eds. Czerniak, J. and Hargreaves, G. in *Large Parks*, trans 배정환 · idla. 경기 : 도서출판 조경, pp234-275.

Herrington, S. 2006. “Framed Again: The Picturesque Aesthetics of Contemporary Landscapes”. *Landscape Journal* vol.25, pp22-37.

Meyer, E. K. 2010.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eds. Czerniak, J. and Hargreaves, G. in *Large Parks*, trans 배정환 · idla. 경기 : 도서출판 조경, pp65-95.

Mitchell, D. and Richard, V. D. 2001. “Downsview Park: Open Space or Public Space?”. *CASE: Downsview Park Toronto*, New York : Harvard Design School and Prestel, pp104-109.

Pollak, L. 2010. “Matrix Landscap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A Critical Analysis of Large Parks Design in Korea with a Perspective of Contemporary Design Issues

Keywords: Large Parks Design, Design Analysis, Ttukseom Forest Park Design Competition(2003),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Master Plan of the Yongsan Park(2012)

Since the 2000s, a number of large parks have constructed in Korea. These large parks work like infrastructure in urban field. Then, how to design the large parks? As part of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proceeds that the following discussion. First, this study derives the three concepts as design issues of a large park: publicity, ecology, aesthetics. Through the large parks design, designers intend to restore and expand the value of the publicity of the park. And they intend to integrate the city and ecosystems. Besides, they overcome the limits of traditional aesthetics of the park. If so, how these design directions appear in the actual desig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design competition winners for the leading three large parks that occurred in Korea. These competitions are as following: Ttukseom Forest Park Design Competition(2003),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2007),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Master Plan of the Yongsan Park(2012). As a result, large parks suggest a new role to the space of parks. The large parks designs transformed a park to an operated and organic space. However some problems have found in designs, so designers should review it. In addition, due to a new strategy of large parks, the intrinsic function of the park is overlooked. So recovering the intrinsic function of the park is required.

설계 쟁점에 따른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비판적 분석

주제어: 대형 공원 설계, 설계 분석, 독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에는 다수의 대형 공원이 계획·조성되었다. 이들 대형 공원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기반시설처럼 작동한다. 그렇다면 대형 공원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의 일환으로 먼저 공공성, 생태, 미학이라는 세 가지의 설계 쟁점을 도출하였다. 대형 공원 설계에서는 공원의 공공성 가치를 회복하고 확장시키고자 한다. 또한 도시와 생태계를 통합하고, 전통적 공원 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 방향은 실제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본 논문은 ‘독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200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2007)’,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의 수상작들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형 공원은 공원의 역할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 각각의 설계안들은 공원을 도시 내에서 보다 작동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다각도에서 설계상의 한계가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한편, 대형 공원 설계에서 간과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공원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된다. 공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원 설계의 성숙한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